

챔피언 KIA 12월도 “바쁘다 바빠”

연봉 협상·골든글러브 시상식 참석

중순엔 포항서 자체 훈련 캠프 열어

2009 프로야구 우승팀 KIA 타이거즈의 뜨겁고 분주한 12월이 전개된다.

KIA에게 올 시즌은 무척 길었다. 가을전 치와 한일챔피언십을 치르느라 11월 중순까지 쉴 틈이 없었다. 4강 탈락으로 일찌감치 시즌을 접었던 지난해보다 두 달정도 긴 시즌을 보낸 셈이다.

경기일정 및 방송 스케줄까지 소화한 선수단은 우승을 기념해 지난 25일 사이판으로 우승여행을 떠나 망중한을 즐기고 있다. 하지만 귀국과 함께 선수단은 2010 시즌을 위한 구상을 시작해야 한다.

먼저 우승팀으로서 분주하게 움직이느라 미뤄졌던 연봉협상이 선수단을 기다리고 있다. 6일에는 유격수로 굳건히 그라운드를 지킨 이현곤이 백년가약을 맺는다.

11일에는 프로야구의 큰 잔치인 골든글러브상식이 열린다.

올 시즌 1·2군 올스타, 한국시리즈, 시즌 MVP까지 ‘MVP 그랜드 슬램’을 이뤄낸 KIA는 황금 잔치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단 한 명의 골든글러브도 배출하지 못했던 KIA는 로페즈·최희섭·김상훈·

김상현 등 생생한 후보군을 전면에 내세우고 뜨거운 12월을 준비하고 있다.

골든글러브 이외에도 각종 연발 시상식의 주역은 KIA가 담당할 전망이다.

15일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구단 납북식이 예정되어 있다.

12월 중순부터는 한국시리즈 2연패를 위한 선수들의 의기투합이 시작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황병일 코치를 중심으로 포항에 KIA 선수들의 자체 캠프가 차려질 예정이다.

최희섭·나지완·안치홍은 지난해 황병일·김동재 코치와 함께 포항에서 12월을 보냈다. 타격과 수비 등 쉼없이 훈련을 했던 세 선수는 올 시즌 우승의 기회가 되며 땀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이들의 활약에 힘입어 올 시즌 더 많은 선수들이 ‘액속의 땅’ 포항으로 향한다. 김상현·박기남·이용규 등이 포항행을 준비하고 있다.

시상식과 결혼식 그리고 자체 훈련까지 KIA는 스포츠리그를 잊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우승기념으로 해외여행을 떠난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27일 사이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게임도중 아지수를 던지고 있는 최희섭(사진 위). 속소인 Pacific Islands Club 수영장에서 수중 농구를 즐기는 선수들.

생활 게시판

화족

▲차사현(전 완도 경찰서)·손인지씨 차남 명수(변호사)·군故 강대우·故 김향주 씨 장녀 민정(전 미래로21 내과전문의)양 =28일(토) 오후 1시30분 상무리초등학교 선례당홀 1층(아이비홀)

▲이삼수(전 광주우치동물원장)·이덕희씨 장남 창근군 문두식(전 국군 기부사령관)·조충자씨 장녀 서영양=28일(토) 오후 5시 서울 센트럴시티 웨딩&컨벤션 센터 6층(밀레니엄홀)

▲정동주·강우남씨 장남 회상군 조윤

부동

희·김정자씨 차녀 지영양=28(토) 낮 12시30분 경복궁 웨딩컨벤션 2층(미소홀)

▲박균혁·이경순씨 장남 천룡군 황병택·윤양미씨 장녀 경미양=28(토) 낮 12시30분 경복궁 웨딩컨벤션 1층(경복궁홀)

▲미현숙(전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장)·이수진씨 차남 영수군 서선심씨 사녀 한현숙양=29일(일) 오후 1시 서구 상록웨딩홀 3층(무궁화홀)

▲이삼수(전 광주우치동물원장)·이덕희씨 장남 창근군 문두식(전 국군 기부사령관)·조충자씨 장녀 서영양=28일(토) 오후 5시 서울 센트럴시티 웨딩&컨벤션 센터 6층(밀레니엄홀)

▲정동주·강우남씨 장남 회상군 조윤

▲박문안씨 별세 헉택·순복·미항·미희·순영·정순·정미씨 부친상=발인 28일(토) 학동금호장례식장 특실 301호. 062-227-4000.

▲조효익씨 별세 계정·선님·한희·성자·선옥씨 부친상=발인 28일(토) 학동금호장례식장 201호. 062-227-4000.

▲이병숙씨 별세 이원의·성의·철의·영자·성자·옥자·공자씨 모친상=발인 28일(토) 학동 금호장례식장 201호. 062-227-4000.

▲설동일씨 별세 당환·정옥·정희·정재·정임·정래·한강씨 부친상=발인 28일(토)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정원균씨 별세 종현·종희·정숙·이숙·순자·남숙씨 부친상=발인 28일(토)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227-4000.

박지성·이청용 주말 출격 완료

佛 모나코 박주영, 일부 선수 신종플루로 경기 연기

이번 주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일본 J-리그에서 뛰는 해외 선수들이 출격을 기다리고 있다.

프리미어리그 ‘맏형’인 박지성(28)은 28일(이하 한국시간) 자정 포츠마스와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다.

박지성은 26일 블랙번 로버스와 홈 경기에서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도 끝내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하는 등 네 경기 연속 결장했다. 수비형 미드필더 조원희(26·위건 애슬레틱)는 28일 자정 훗스퍼와 원정 경기에서 앞두고 있다.

조원희 역시 23일 훗스퍼와 원정 경기에서 앞두고 있다.

박지성은 26일 2009-2010 유럽축구

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B 조 5차전 베식타스(터키)와 홈 경기에서 왼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 후반 24

분까지 69분 동안 활약했다. 13경기 만

의 출장에서 활발한 몸놀림을 보인 박지

성은 포츠마스전 중庸이 기대된다.

이청용(19·볼턴 원더러스)은 같은 시각 풀럼과 원정경기에서 8경기 연속 출장에서 도전한다. 23일 블랙번 로버스와 홈 경기에서 후반 24분 리카르도 대신 교체 출전하며 리그 7경기 연속 그라운드를 밟은만큼 출전 가능성이 커보인다.

풀럼의 설기현(30)이 이청용과 맞대결을 펼칠 수 있을지도 관심사지만 설

기현은 26일 블랙번 로버스와 홈 경기에서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도 끝내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하는 등 네 경기 연속 결장했다.

일본 J-리그에서 활약 중인 한국선수들은 28일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이근호(이와타)와 조재진(감바 오사카)은 이날 오후 히로시마, 가시마와의 경기에서 각각 12회와 11회기에 도전한다.

한편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에서 뛰는 박주영(24·AS모나코)은 27일 새벽 훗스퍼에서 몽펠리에와 경기를 치를 예정이었지만, 몽펠리에 일부 선수의 신종플루 감염으로 경기가 연기되면서 출전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게 됐다.

/연합뉴스

골프월드컵 2R 한국 공동 20위

양용은·위창수 조

양용은(37)과 위창수(37·이상 테일러메이드)가 짹을 이룬 한국 골프대표팀이 제55회 미션힐스 월드컵골프대회(총상금 550만 달러) 2리운드에서 공동 20위에 머물렀다.

양용은과 위창수는 27일 중국 선전의 미션힐스 골프장 올라바발코스(파72·7천320야드)에서 포럼 방식으로 열린 대회 2라운

드에서 300바포로 부진하며 중간합계 5언더파를 기록했다. 포럼 방식으로 열린 1라운드에서 8언더파 64타를 합작하며 4위에 올랐던 한국 대표팀의 순위는 20위까지 추락했다.

아일랜드 대표팀은 4언더파, 중간합계 18언더파를 기록하며 1위 자리를 지켰다. 28일에는 포럼 방식으로 3라운드가 진행된다.

/서승원기자 swse@kwangju.co.kr

골프단, 여자골프 선수영입 애로

상품성 높아져 계약금 대폭 올라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시즌이 끝난 뒤 재계약 또는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려는 골프단들이 대폭 오른 계약금 요구 때문에 울상을 짓고 있다.

올해 KLPGA에서는 대회가 축소되는 불황 속에서도 시즌 막판까지 상금왕과 다음 왕 경쟁이 치열했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는 한국인 최초의 상금왕이 배출되는 등 한국여자골프의 위상이 치솟았다.

이 때문에 상품성이 높은 여자골프팀을 새로 창단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당장 내년 시즌 우승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확실한 선수는 열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다.

내년에 여자팀 창단을 준비하고 있는 토마토저축은행 골프단 관계자는 “한 선수와 접촉했는데 예상했던 계약금보다 5천만 원을 더 요구했다.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동아회원권 골프단 관계자도 “계약금 3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5천만 원이나 6천만 원이 하라면 계약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연합뉴스

2009. 12. 01 pm 7:0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주CBS 역사 50년, 미래 50년 비전 천포기념”

제28회 성탄축하 음악회

12월을 맞는 것과 함께 햇빛이 시작됩니다. 예술을 즐기고 예술을 찾는 이들이 모여드립니다.

광주CBS Meta Philos Cellisten
 CBS 관사 합창단 / CBS 여성 합창단 / CBS 소년소녀 합창단
 광주은행교회 / 광주기독교교회 / 청년중앙교회



음악회 티켓은 광주CBS 홈페이지, 문의: 376-2500-1